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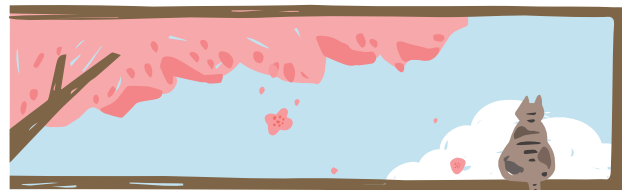


2022  
작은도서관  
이야기

작은도서관, 생활 속 열린 문화 쉼터

2022 작은도서관 이야기

2022  
작은도서관  
이야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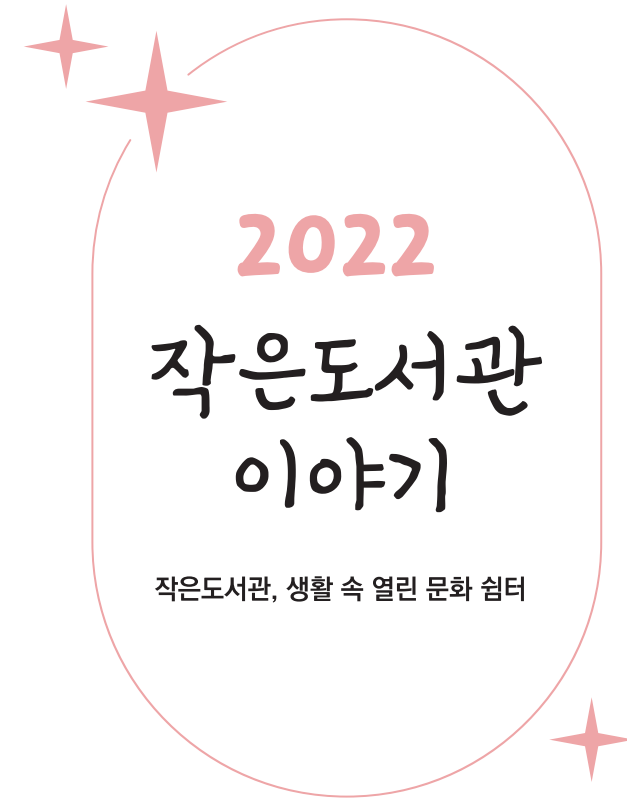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9 791196 680544

ISBN 979-11-966805-4-1

2022  
작은도서관 이야기



2022  
작은도서관  
이야기

작은도서관, 생활 속 열린 문화 쉼터

# contents

## INTRO

- 6 목차
- 8 들어가는 말
- 10 미리보는 2022 작은도서관 이야기

## part 01. 공립 작은도서관

- 16 배꽃뜰작은도서관
- 20 그루터기청소년작은도서관

## part 02. 사립 작은도서관

### I. 아파트 운영 작은도서관

- 26 동화 작은도서관
- 30 숲속SH 작은도서관
- 34 산들마을푸른숲 작은도서관
- 38 동탄행복마을푸른작은도서관
- 42 큰꿈도서관
- 46 별빛누리도서관

### II. 교회 운영 작은도서관

- 50 징검다리어린이 작은도서관
- 54 초대구름도서관

### III. 단체 운영 작은도서관

- 58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 62 별별작은도서관
- 66 청포도 도서관

### IV. 개인 운영 작은도서관

- 70 책사랑내서마을도서관
- 74 푸른나무 작은도서관
- 78 다운작은도서관
- 82 짱뚱이어린이도서관

### V. 특화 작은도서관

- 86 서울하우징랩SH

## part 03.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이야기

- 92 작은도서관 비대면 활동 소감 공모전
- 96 도서관 3행시 이벤트

## 들어가는 말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부담 없이 찾아와 온기와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저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이웃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2022 운영사례집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가치,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 친화적 소통 공간을 만들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직접 취재해 발간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활동과 운영자들의 경험이 담겨 있어 작은도서관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이들에게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례집에는 전국 작은도서관의 정보 서비스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이야기도 함께 실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식정보를 나누고 지역공동체 역할을 하는 구심점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미리보는 2022 작은도서관 이야기

## 책사랑내서마을도서관 | 마을을 살리는 마중물



책사랑내서마을은 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한마을한책읽기, 도서관학교, 바자회, 신년회, 공동체 교육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노력한다. 플룻이나 가야금, 중국어나 원어민 영어회화 등의 음악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플룻은 도서관에서 배워 공연에 참가하고, 가야금은 노래 명창까지 배우고 공연 봉사활동도 활발하다.

중국어는 아동, 청소년, 성인 반으로 분류해 수업을 진행하고, 영어회화는 원어민 강사가 5단계 난이도로 나눠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매력이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이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덕분에 2020년 창원시에서 개최한 평생학습시설 우수기관 최우수상을 시상할 수 있었다.

## 다운작은도서관 | 마음 테라피 감정 그림책



다운만의 특징인 감정 그림책 특화도서관은 상담 코칭, 육아 코칭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운영자 노 대표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 대표는 다운에서도 상담 코칭과 관련된 그림책 감정 코칭 강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온다 꼬마 사서'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미리 준비한 키트를 각 가정에서 수령해가고 약속된 시간에 온라인으로 모여 꼬마 사서가 들려주는 그림책을 듣고 활동한다. 30여 가정이 온라인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 응원하고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 주민들에게 힐링 시간이 되어줬다. 현재는 대면과 온라인을 겸해서 진행 중이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 산들마을푸른숲 작은도서관 | 똑똑똑 창작놀이



산들마을푸른숲에는 2020년부터 도서관 한쪽에 '어린이작업실 모야'가 자리 잡았다. 모야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도서관재단 씨앗, reliquum의 지원으로 선생님과 커리큘럼 없이 어린이들 스스로 하고 싶은 바를 마음껏 시도하고 표현하면서 창작하는 자신감을 키워가는 공간이다.

도서관 내 별도로 마련한 공간에서 7세부터 청소년까지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창작물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작은손들은 모야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 만드는 것에 영감을 받고, 완성된 작품에 부딪힘도 느끼며 재미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향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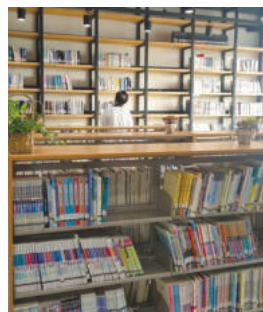
## 그루터기청소년작은도서관 | 청소년 마음을 움직이는 곳



그루터기청소년은 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과 동아리에 특화된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21년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책이 꽂힌 서가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루터기룸, 청소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공간,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탕비실까지 풍성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있다.

그루터기 청소년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은 유난히 많은 다양한 청소년 도서와 자유로운 분위기의 쉼터로 찾았다가 짜임새 있고 성의 있는 프로그램에 반한다고 한다.

## 배꽃뜰작은도서관 | 포스트 코로나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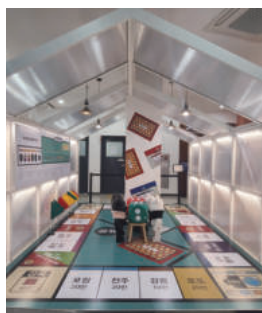


배꽃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SNS를 통한 도서관 운영을 실천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책독방' 독서모임, 온라인 밴드로 '시 낭송회'와 '월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독서회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 전용 밴드를 개설해 도서 추천 릴레이,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진행해 비대면 서비스를 주도한다.

더불어 집콕 도서목록 추천과 휴가지에서 읽을 책 소개하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책 무지개 만들기, 시 필사 행사 등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시간·공간·인원의 제한이 없는 온라인 독서토론 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 서울하우징랩SH | 주거와 도시를 읽는 책의 향연



서울하우징랩 공간은 개방형 공유공간과 교육 및 세미나 공간, 카페테리아, 쇼룸 및 워크샵 공간, 대강당, 주거 관련 도서와 영상 콘텐츠 전시 공간, 수유실, 갤러리,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안하게 원하는 공간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다. 누구나 살기 좋은 서울을 상상하는 시민들의 공간인 만큼 주거, 건축, 도시를 기반으로 테마 도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도서관의 자랑인 테마 관련 프로그램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힘든 청년들의 주거문제, 일과 사랑과 삶에 대한 고민 같은 지금 시대에 서울을 살아가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함께 보며 소감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많은 청년에게 공감을 끌어냈다.

### 징검다리어린이 | 어린이와 어른의 징검다리



징검다리어린이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화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0년 전 즈음에 안양을 소개하는 영화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으로 무작정 시장과 안양천을 찍던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역 감독들의 도움과 촬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주민들 덕분에 지금까지 매년 4편씩 작품이 나왔다.

아이들이 영화를 직접 만든다는 소식에 시장, 상점, 경찰서 등 다양한 곳에서 유쾌히 촬영을 협조해주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영화관을 대여해서 상영회를 열어 마을 주민들이 보러 가기도 해 마을 간판 문화활동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동네를 돌아보며 아이들이 마을 지도를 그리는 '우리 마을을 그려요'는 어른 눈에 낙후된 동네를 아이들이 '행복한 우리 마을' 이라고 이름 붙인 그림을 보고 어른들이 눈물을 쏟기도 했다.

### 큰꿈도서관 | 독서문화 꽃피우는 지역 협의체



서울 은평구 아파트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이 있다. 먼저 '스탬프 콩콩'은 진관동 소재의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도서를 읽고 엽서를 써서 제출하면 스탬프 도장을 받는다. 4개 이상 찍으면 기념품 증정해주고 있다.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도서관을 돌며 독서하는 모습은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진관동 문학이 꽃피는 동네'는 주변 역사, 문화시설을 엮어 해설과 함께 둘러보는 작은도서관 탐방이다. 거주지역에 잘 알지 못했던 곳의 설명을 듣다 보면 새롭게 독서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곳도 있다. 협업 행사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를 맞이하고 있다.

### 별별작은도서관 | 도서관 운영을 이끄는 주역, 자원봉사자



별별의 자랑이자 도서관 운영에 큰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현재 30여 명이 활동한다. 자원봉사자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는데 바로 별별지기다. 별별작은도서관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의미로 자발적으로 도서관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모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별별지기는 세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총괄 1명, 도서에 관한 것과 환경정리를 맡은 사서 역할팀 20명, 학습지도, 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맡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구성된 '아는 형님'팀 10명이 있다. 워크숍과 회의를 연간 4회씩 진행할 정도로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 '아는 형님'은 초등학교생들에게 마을의 중고생과 대학생들이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주도한다.





# 지역 중심 공동체 활동의 마중물 도서관

## 배꽃뜰작은도서관

배꽃뜰작은도서관은 독서 단체 비채나누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문화시설이 열악한 전북 완주군 이서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이끌기 위해 지역 대표 문화 사랑방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도서관 활동과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연계 활동을 진행하는 이른바 이서지역 맞춤형 도서관이다.



운영

월~토 09:00~18:00,  
(일 휴관)

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완주군 이서면  
이서로 55 이서주민자치센터 3층

유형

공립 작은도서관

## 이용자에게 귀 기울이는 주민 맞춤 도서관

배꽃뜰작은도서관은 2008년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해 처음 문을 활짝 열었다. 문화의 장이 열리자 독서뿐만 아니라 책과 함께하는 모임으로 자연스레 연결되며 마을에 활력을 전달했고,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19년 생활SOC공모사업을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카페 분위기의 개방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림책방, 성인 열람 공간, 동아리방 등을 새롭게 꾸며 현재의 아늑한 모습이 되었다.

개관부터 함께한 비채나누는 독서회로 출발해 2019년에 주민독서 단체인 비채나누를 설립하며 도서관 운영의 주체가 됐다. 비채나누의 회원들은 12년간 배꽃뜰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근무했고, 지속적인 도서관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통한 도서관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덕분에 작은도서관을 주민이 주도해 직접 꾸러가는 민간위탁 도서관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자리한 배꽃뜰작은도서관의 장서량은 총 1만 3천여 권으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문학기행’, ‘연합독서모임’, ‘시 낭송회’를 개최해 도서관의 연례행사로 정착시키는 등 도서관 행사를 추진했다. 2019년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운영에 힘쓰고 있다.





현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SNS를 통한 도서관 운영을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진행해 비대면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대면으로도 휴가지에서 읽을 책 소개하는 행사, 청소년 명랑독서회와 성인 노나메북클럽, 비채나누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시쓰기와 친환경EM비누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능기부를 통한 3D펜 원데이 클래스, 요리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활발한 독서문화활동을 권장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0년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배꽃뜰작은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전북도 내 공립 작은도서관 3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운영평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운영사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극복 노력사례, 지역사회협력,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등 정성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 위드 코로나를 위한 도서관 활동의 강자

배꽃뜰작은도서관의 눈에 띄는 점은 비대면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자원봉사 기회가 줄어든 청소년 대상으로 ‘시화·그림책 따라 그리기’에 118명의 학생이 참여해 시화 97점과 그림책 46점을 제출받았다. 프로그램 운영과 장서구성, 다양한 시쓰기 프로그램을 통한 시(詩) 특화도서관 등을 추진해 호평받았다.

주부독서회, 청소년낭독동아리, 인문학독서모임 등 도서관을 기반으로 여러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또한 이서지역 기반 협동조합이나 지역상점인 이서미디어카페, 따라쥬협동조합, 하나로약국과 연계하고, 완주군 도서관에 협력해 완주군 도서관이 주최하는 행사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완주군 도서관의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해 지역의 공동체 중심으로 문화활동에 힘쓰며 주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주도적으로 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마을의 독서문화확산을 이끌고 있는 배꽃뜰작은도서관. 앞으로도 비채나누와 공동체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행복한 도서관이 되길 기대해본다.



# 꿈과 희망을 주는 청소년 문화 놀이터

## 그루터기청소년작은도서관

그루터기청소년작은도서관은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자리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청소년 특화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은 물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차도 마시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쉼터 같은 북카페형 작은도서관이다.



운영	주소	유형
화~토 09:00~18:00, (월, 일 휴관)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476-21, (어양동) 청소년수련관 1층	공립 작은도서관



## 게임도 즐기고 책도 읽고,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익산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 내 운영되지 않고 있던 유휴공간인 식당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SOC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선정돼 2020년 1월에 개관했다. 개관 당시에도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다른 도서관보다 여유로운 공간과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도서관 이름은 베어진 나무의 밑동인 그루터기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새로운 싹이 자라듯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이 이 시대 남은 자로 꿈과 희망이라는 의미로 지었다. 청소년들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에 옮긴 덕분에 자연스럽게 익산시 주민들의 문화 쉼터로 자리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도서관도 함께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익산시 중심인 중앙체육공원 안에 위치 해있어 공원 주위의 아파트 단지 주민과 산책하러 온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한다.

“도서관에서 사계절 꽃과 나무들을 보며 독서할 수 있는 자연 속 카페 같은 곳이에요. 청소년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보드게임과 VR게임도 즐기고 복층구조의 다락방 빈백 소파에서 편안하게 독서와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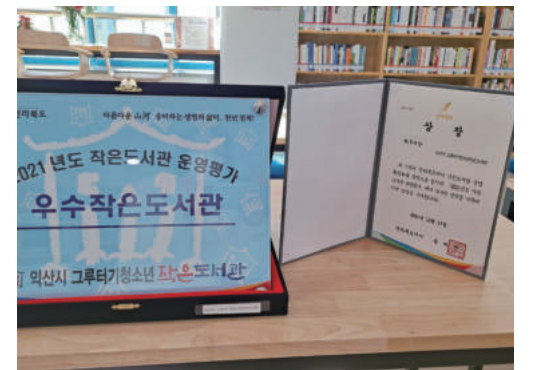
그루터기는 약 83평 규모에 주민들이 풍성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탕비실, 쉼터공간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루터기룸이 있고, 도서관 한쪽에는 조명 있는 소규모 무대에서 시 낭송 대회, 발표회, 세미나 등이 활발하게 운영된다.

김미화 사서는 “전체도서관의 60% 이상이 청소년과 아동도서관이에요. 청소년이 좋아하는 웹툰도 비치해 누구나 쉽게 책 읽는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했죠. 단지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고 친구나 가족이 함께 VR게임과 보드게임도 하는 편안한 곳이지요.”라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구성에 대해 말했다.

### 힐링형 프로그램으로 문화생활 전파

도서관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이끈다. 성인대상 프로그램과 익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하는 '익산시 평생학습관 늘배움터' 사업 지원으로 강사료와 재료비를 지원 받아 초등학생 대상의 '조물조물 클레이아트', '도란도란 가족공방' 등을 진행한다.

청소년 대상 동아리와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수채화캘리,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선거교육, 도자기 핸드페인팅, 식물과 함께하는 미술놀이, 나만의 수경 식물 키우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특강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중학생 대상 동아리 '북이슈'는 청소년 권장도서를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또래와 관계를 형성해 불안하고 힘든 청소년기를 즐겁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게 한다.



“2021년 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돼 작가가 도서관에 상주하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어요. 청소년들이 아무 걱정 없이 도서관에 찾아와 육체적, 심리적으로 잘 충전되고 회복하고 가길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진들은 활동하면서 동네 가까이에 위치해 책을 읽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독서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꼈다. 이들은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더욱 부흥해서 마을이 조금 더 따사롭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세상이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란다.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깨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이웃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나아가 그루터기청소년작은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 힐링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02

Part.

## 사립 작은도서관

### I. 아파트 운영 작은도서관

- 동화 작은도서관
- 숲속SH 작은도서관
- 산들마을푸른숲 작은도서관
- 동탄행복마을푸른작은도서관
- 큰꿈도서관
- 별빛누리도서관

### II. 교회 운영 작은도서관

- 징검다리어린이 작은도서관
- 초대구름도서관

### III. 단체 운영 작은도서관

-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 별별작은도서관
- 청포도 도서관

### IV. 개인 운영 작은도서관

- 책사랑내서마을도서관
- 푸른나무 작은도서관
- 다운작은도서관
- 짱뚱이어린이도서관

### V. 특화 작은도서관

- 서울하우징랩SH

# 동화마을의 꿈트는 독서문화 터전

## 동화 작은도서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깨끗하고 조용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화 작은도서관이 있다. 창고로 방치됐던 곳이 공간변화를 맞이해 지역의 가치를 더해가는 곳이다. 아이들의 꿈이 무력무력 자라고 어른들에게 지식정보를 선사하는 터전으로 자리매김하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자랑거리로 변화하고 있다.



운영

월~금 09:30~17:30  
(토, 일 휴관)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21, (휴먼시아동화마을아파트)  
동화마을3단지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방치된 공간의 놀라운 변화

봉담읍의 휴먼시아동화마을아파트 3단지 1층에는 문 앞에서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는 동화 작은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창고로 사용할 정도로 이용이 안 되던 문고를 주민들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하고 싶었던 흥준표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과 협의해 '아름다운마을만들기'라는 단체를 등록 후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2천만 원으로 지금의 동화 작은도서관을 조성했다. 그렇게 그는 아파트 관리소장이자 작은도서관의 관장이 됐다.

공간의 변화에 힘입어 도서관 옆에 있는 창고도 맛별이가정, 노인이 많다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 도서관과 왕래할 아이돌봄센터를 화성시에 지원 요청해 조성했다. 2019년에 처음 문을 열고 이듬해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며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LH의 작은도서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일정 기간 상주하는 코디네이터도 지원받았다.





홍 관장과 박은아 코디네이터는 새로운 공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화리 주민들의 회의공간으로 사용하며 커뮤니티 장으로 자리 잡았다. 작은도서관을 중심지 삼아 마을과 주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동동산책’ 동아리를 만들었다. ‘산책하며 마을만들기’라는 취지로 만들고 싶은 동화리에 관한 의견을 나눠 원예아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화성시 마을공동체에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 도서관을 알리고픈 열정, 유튜브 공모전 대상 수상

도서관은 돌봄센터와 맞붙어 있어 잠깐 들러 만화책이라도 꺼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쉽게 영위할 수 있도록 문 하나로 왕래할 수 있게 만들어 독서를 갈망하는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 돌봄센터와 협업해 아이들 대상으로 ‘문해력 기르기’와 ‘그림책 아트북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영화 감상하는 ‘영화의 날’도 기획 중이다. 코로나로 제한적인 삶을 살던 주민들은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밝은 미소로 반겼다.

장서 분류는 노란색 띠 스티커를 서가에 붙여 위에는 성인 도서, 아래는 어린이 도서로 구분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과 세종도서에서 1년에 두세 번씩 200~300권의 도서를 보급받고, 화성시에서 약 150권 정도의 신간 도서를 지원받는다. 도서관은 도서부터 동아리와 프로그램까지 주민이 원하는 것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주민주도형 도서관을 지향한다.

지난해에는 ‘2021 LH 작은도서관 유튜브 공모전’에서 대상도 받았다.



“도서관 홍보를 하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중 마침 LH가 주최한 공모전이 눈에 띄어 이때다 싶어 참여했어요. SNS와 맘카페, 아파트 게시판, 돌봄센터 아이 부모 대상으로 홍보했고, 다른 지역보다 문화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준 덕에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동화 작은도서관의 이름을 알리는데 일조한 이 영상에서 도서관은 책만 읽는 엄숙한 분위기보단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활력이 넘치는 장소다. 코로나로 억압돼있는 분위기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힐링되는 도서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됐다.

“도서관 명 同(한가지 동), 和(화할 화)에 맞게 아파트 주민 모두가 힘과 마음을 맞추면 좋겠어요. 천천히 해도 좋으니 동화 작은도서관에 편하게 와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 되는 게 홍준표 관장의 바람이다. 아파트에 살아 이웃과 소통이 적어 갈등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한마음이 되도록 화합의 장 역할을 하고 싶은 게 그의 의지다. 동화리 주민들이 교류하는 커뮤니티의 공간이 되는 동화 작은도서관의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 문화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도서관

## 숲속SH 작은도서관

숲속SH 작은도서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향동로에 자리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향동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마을 소통의 장을 위해 만든 도서관이다. 마을 주민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이들 교육과 문화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함께하며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 운영

월, 수 10:00~18:00  
화, 목, 금 10:00~22:00  
토 10:00~14:00  
(일 휴관)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향동로 43,  
(향동, 하버라인 3단지)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새로운 지구, 새로운 문화



서울의 마지막 신규택지개발지구로 인프라 시설이 미흡해 아파트 하나만 있던 향동. 아파트촌일 것만 같은 이곳에 존재만으로도 치유되는 문화 쉼터 숲속작은도서관이 있다. 30~50대 가구 비율이 높으며 그에 따라 유아동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여러 각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모인 만큼 주민들이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열정과 비교하면 문화나 도서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젊은 가구들이 열정을 지지대 삼아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초기 자원활동가가 17명이나 됐다. 이들의 열정으로 무사히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가 적을까 걱정했지만, 주민들이 바라던 공동체가 활성화돼서인지 도서관을 많은 분들이 반가워했다. 주민들의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 도서관도 양질의 책과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이용자들을 맞이했다. 그렇게 숲속작은도서관은 향동지역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 자원활동가 손길로 일구는 초록빛 책 바람

향동은 녹지가 30%에 달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푸른수목원이 자리해 있다. 천왕산과 수목원 사이 숲 안에 있는 '숲속'이라는 이름에 따라가듯 자연을 많이 활용한다. 수목원과 공원에서 수채화 활동을 하거나 아이들과 숲놀이도 하며 마을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도서관은 72평 규모에 1만여 권에 달하는 장서를 갖췄다. 소모임실 한쪽 벽면을 차지한 벽화처럼 자원활동가의 손길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아이들 대상으로 미술 수업과 식생활 개선,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원하는 활동에 강사로 참여해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받으며 재능을 꽃피운다.

송지현 사서팀장은 “어린이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는데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열의가 높아서 항상 인기가 많아요. 인근에 문화생활을 누릴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문화 행사를 많이 진행하도록 각별히 노력 중이죠.”라고 전했다.

동아리도 현재 9개가 운영 중이고, 자원활동가와 주민들 위주로 강사를 섭외하려고 노력한다. 초등학생 독서동아리, 성인 독서토론동아리, 그림책 연구모임, 그림책 읽는 성인 동아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영어책 읽는 동아리, 뜨개동아리 등이 도서관을 대표하는 동아리로 발전하고 있다. 이 중 뜨개동아리는 활동 중에 만든 물품으로 전시회와 판매도 해서 지역에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다.



### 마을 문화 숨결을 채워가는 도서관으로



숲속작은도서관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50명, 2021년 연간 대출 건수 2만여 권에 달할 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33명의 자원활동가가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야간팀인 달님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평일은 최대 22시까지, 토요일은 10~14시에 문을 열고 있다. 직장인들도 일 마치면 도서관에서 활동하며 자원 활동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개관식을 2020년 10월에 마을 축제인 하하하페스티벌의 메인 행사로 함께 진행했다. 구로구청, SH지원사업단, 공동체사업 ‘같이살림 프로젝트’ 등 여러 사업이 모여 규모가 상당했다. 이때 많은 사랑을 받은 덕분에 하하하페스티벌은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매년 진행 중이다. 입소문이 퍼져 첫 회 방문자가 신규방문자와 함께 참여해주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마을 축제로 자리 잡았다.

다방면으로 운영해 좋은 성과를 내는 숲속SH 작은도서관. 조슬기 관장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함께 작은도서관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이 어우러져 작은도서관 문화가 더 활짝 꽃피우길 바라는 염원을 전했다.

# 무엇이든 만들고 실험하는 문화 작업실

## 산들마을푸른숲 작은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자리한 산들마을푸른숲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에게 독서와 창의활동으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소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공간을 꿈꾸는 도서관은 오늘도 이용자의 신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 운영

월 ~ 금 12:00~18:00  
토 09:00~13:00  
(일 휴관)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 51,  
(여수동, 산들마을)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한계 없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곳

산들마을푸른숲의 운영은 5명의 주민이 좋은 책을 함께 읽고 나누고 싶은 소망으로 운영위원회를 결성해 2017년 3월에 문을 열며 시작됐다. 개관 소식을 들은 하연서 주민은 평소 책을 좋아해 기쁜 마음으로 도서관과 자원봉사자로 인연을 맺었다.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다. 문화 활동할 공간이 없어 문화시설의 필요성을 느끼던 와중 문을 연 산들마을푸른숲은 유아동과 그 부모가 주로 이용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서관은 약 60평 규모에 8천여 권에 달하는 장서를 갖추고 있다. 내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아늑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책 읽기 좋은 책상이 놓여있고, 유아동 공간을 따로 방으로 구성해 신발을 벗고 들어가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만들었다. 도서관 전면 유리로 주변 초목 경관이 잘 보여 이용자들의 편안한 독서를 돕는다.

“좋은 도서를 제공하고 싶어 주민 맞춤형 장서, 독서 편식을 지양하는 새로운 유형을 갖추고자 신경 쓰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기를 바라요.”

2020년부터 도서관 한쪽에 어린이들이 다양한 창작물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어린이작업실 모야'가 자리 잡았다. 아이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칠 통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세심함이 돋보이는 이곳은 명





칭도 특별하게 지어 재미를 더했다. 어린이를 '작은손', 활동을 보조하는 어른을 '오른손', 어린이의 보호자를 '뒷짐손'이라고 부른다.

“모야를 이용하는 작은손의 작업 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보호자는 손을 뒷짐 져야 들어올 수 있어서 뒷짐손이라고 부르답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혼자나 친구끼리 모야에 방문해 스스로 활동하죠. 이곳에서 아이들이 생일선물을 만들거나 스승의 날 이벤트로 선물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함께 사는 마을이라는 게 느껴져요.”

### 책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마을 사랑방

하루 평균 30명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언제나 아이와 어른들로 북적인다.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마을이 멘토다'라는 사업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여행 도서를 읽고 나만의 여행 책가방 만들기, 예술 도서를 읽고 그림 재해석하기, 과학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실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 다채롭다. 올해는 '내 마음을 요리책'과 주민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라탄, 비누 등 생활품 만들기를 계획 중이다.

프로그램은 주로 만들기 활동과 과학실험을 집중해서 구성한다. 도서관 인근 동산에서 숲 체험 활동, 과학실험, 비누 만들기를 진행해 아이와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가는 유아부터 성인 도서까지 고르게 채워져 있다. 여러 나라의 도서와 청소년 그래픽 노블, 과학 도서를 주로 구비하고 있다.

올해로 개관한 지 7년 차를 맞이한 산들마을푸른숲은 근처 마을단지와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방문해 마을 내 누구에게나 열린 작은도서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느 작은도서관처럼 고민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도움 주려는 주민들 덕분에 여태 무사히 운영되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상주할 사람이 필요한 실정이다.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과 방법이 조금 다를 뿐 같은 방향의 비전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들은 궁극적으로 방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운영진들은 인적, 물적 자원이 안정되면 개관 시간을 연장해 방과 후, 퇴근 후에도 주민들의 자유로운 독서문화 활동을 위해 확대 운영하고자 노력을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대화와 웃음이 가득한 작은도서관을 만들며 계속해서 독서문화를 꽃피워갈 예정이다.



# 내 집 앞 문화활동으로 피어나는 행복

동탄행복마을푸른작은도서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에 위치한 동탄행복마을푸른작은도서관은 책과 함께 일상을 꿈꾸는 문화사랑방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며 영천동 대표 독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운영

월 ~ 금 11:00~17:00  
(토, 일 휴관)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6길  
81, (영천동, 동탄 행복마을 푸르  
시오)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이웃과 문화의 연결고리



영천동에 공립도서관이 있으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하기엔 꽤 먼 거리였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고 독서문화활동을 즐기길 바라는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단지 내 비어있던 시설을 도서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덕분에 무사히 도서관 기증받아 공간을 채우고 화성시 운영지원사업 지원으로 2018년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도서관은 44평에 열람실과 프로그램실로 구성돼있다. 행복마을 아파트는 처음 아파트 입주 때부터 다양한 마을 활동을 진행한 만큼 도서관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활동을 운영하며 마을 문화행사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수진 관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쏟으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주로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관심사도 다양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한다. 아파트 공용공간까지 활용하는데, 악기 연주와 베이킹,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많은 종류의 악기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장점을 백분 활용한다.

지난해 가을에는 '푸른도서관 책 잔치' 행사로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세 줄 백일장, 캘리그라피 따라 쓰고 엽서 만들기, 그림책 속 캐릭터 그려보는 우드버닝 체험 등 10가지 정도의 책과 관련한 전시와 여러 체험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고, 이웃과 환경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주민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져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책 잔치를 진행했죠. 낮과 밤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을 다르게 구성해 많은 분이 끝까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푸른 세상

푸른도서관은 아이와 학부모 모두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을 장식한다. 성인 대상의 필사 동아리와 그림책 동아리, 색채 향기 테라피 프로그램, 캘리그래피, 환경 주제의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어른들의 문화 놀이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아동 대상으로는 손글씨로 마을신문 만들기, 마술 교실, 기타 교실, 그림책 문화교실, 책 속에서 전통놀이 찾기, 방과 후 마을학교, 책친구 어린이 시민 등 신선하고 즐거운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도서관 인근에 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자주 이용해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한다. 문화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학교 말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해서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유익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과 후 시간에 진행한다.

장서는 5천 여권으로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성인, 아동 도서가 80%다. 나머지는 청소년과 기타 도서로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독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북큐레이션 전시로 매달 테마를 선정해서 관련 도서를 전시한다. 지난 전시에는 주민들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한 문화활동도 주도하며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소임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 관장은 “현재 분산된 문화프로그램들을 권역에 있는 공립, 시립 시설들과 협력하고 싶어요. 개별활동하는 작은도서관들이 많은데 캠페인을 마을 단위로 함께 진행하면 주민 참여도도 높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더 많은 이웃을 만나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 마을에 활기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라고 도서관의 목표를 전했다.

마을과 같이 나아가며 영천동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문화 바람을 불어넣는 동탄행복마을푸른작은도서관.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바쁘게 흘러가는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로 자리하길 기대해본다.



#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꿈의 도서관

## 큰꿈도서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에는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져 지역주민들과 조화로운 독서문화를 만들어 가는 도서관이 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큰꿈도서관은 주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다채로운 활동으로 매력 있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 운영

월 ~ 금 10:00 ~ 17:00  
토 10:00 ~ 12:00  
(일 휴관)

###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57-37(은평뉴타운우물골) 244동 지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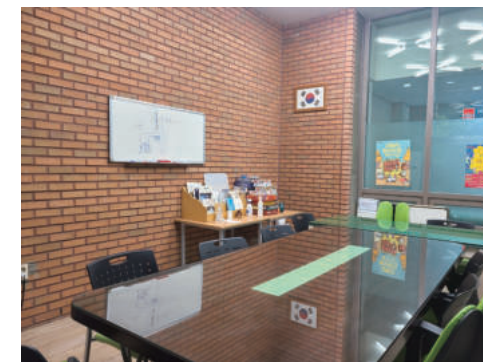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진관동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마을

진관동은 지역주민들이 문화에 관심을 많이 쏟는 덕분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분포한 지역이다.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는 여러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큰꿈도서관은 주로 이용하는 중장년층 니즈에 맞게 구성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2011년에 문을 연 큰꿈도서관은 북한산 아래에 자리해 빼어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곳이다. 이 장점을 살려서 친환경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환경 문제는 모든 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서울 은평구 아파트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서은협)'에서 추진한 청소년 환경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서은협 회원인 정서윤 자원활동가도 도서관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디딤돌이 돼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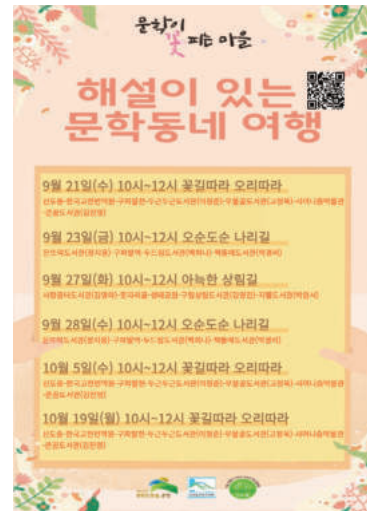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 지킴이 활동을 통해 미래의 친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청소년들이 깨끗이 씻고 말려서 동네 상점 등 필요로 하는 곳에 기증하고 있어요. 주민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서은협은 도서관에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히 운영된다. 진관동 18개의 공공, 작은도서관과 진행하는 행사는 도서관의 자원, 홍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은협 협업 활동 중 어린이 대상의 ‘스탬프 쿵쿵’과 성인 대상의 ‘진관동 문학이 꽃피는 동네’ 프로그램은 특히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도서관 인근에 가득한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획이다.

이외에도 여름에 우산을 무료 대여해주는 ‘공유 우산’, 여럿이 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적어 공유하는 ‘가을 한 점’ 프로그램, 방학 중인 초등학교와 연계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독서록 작성해 인증하면 학교에서 표창을 주는 ‘책 잔치’ 등 다채롭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워킹맘을 위한 요리 키트’를 전달해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자원 봉사자들이 김밥 키트를 준비했는데 다들 좋아했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책에 나오는 현장을 방문하는 역사 탐방과 영어 회화 동아리도 자체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부듯합니다.”



### 큰꿈도서관의 든든한 지원군, 자원활동가들



큰꿈도서관은 9천여 권의 장서가 서가를 빼곡히 채우고 있다. 주로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로 서가를 구성해 성인 문학, 역사, 영어 도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를 좋아하는 주민들 특성상 책 대출이 많아 주로 도서 배치에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장서가 많은 곳과 누구나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방으로 나뉘었다.

“주변에 도서관이 많음에도 큰꿈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신간 도서가 빠르게 구비되고, 이용자가 희망 도서를 신청해서 바로 대여할 수 있다는 장점 덕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작은도서관이 주는 편안함과 자연스럽게 이웃들이 만나 소통의 장이 되는 공간이 매력적이죠.”

현재 큰꿈도서관을 이끄는 자원활동가는 28명이다. 이웃들의 정겨운 모습을 보고 지원하는데, 한번 활동을 시작하면 멀리 이사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함께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봉사하는 대부분이 직장이나 외부 활동을 하는 능력자들이다. 대가 없이 꾸준히 제자리에서 봉사하며 정기 회의를 통해 소통한다.

“운영진들은 업무가 많아 투철한 사명감 없이 지속할 수 없죠. 작은도서관이 도서 대출, 반납만 하는 단순한 기능으로 운영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역 내에서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것이 작은도서관의 방향성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으로 나서서 도서관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들이 큰꿈도서관을 더욱 활기차게 만든다. 운영진들은 건강한 시민을 키워내고 주민들과 독서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꿈꾸며 오늘도 이용자 맞이에 여념이 없다.

# 주민들 교류가 별빛 총총한 독서문화 어울림터

## 별빛누리도서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단지에 자리한 별빛누리 작은도서관은 입주민 10명이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만들어 주민 자발적으로 조성된 곳이다. 2020년 4월 개관한 이래 문화 기반 시설이 없던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문화가 어우러지는 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운영

월 13:00~18:00  
화 ~ 금 14:00~19:00,  
토 10:00~15:00 (일 휴관)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25,  
(신갈동,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주민공동시설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곳

별빛이 온 세상에 가득한 모습을 그리며 도서관의 선한 영향력이 모두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붙인 별빛누리도서관. 이름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약 170평의 큰 규모에 주민 회의실과 6개의 스터디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부모님과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5개의 지붕집이 있다.

별빛누리는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어 청년과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주 이용자가 유아, 아동, 초등학생과 그의 부모들이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긴다.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는 최아름 관장은 “도서관운영위원회는 5명, 자원활동가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서 1명과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도 있는데 운영 도우미부터 프로그램 강사까지 하는 고마운 분들이죠. 초등학생들을 위해 전통문화와 바둑, 장기 수업 등 재능기부를 해주셨죠.”라고 전했다.



## 선호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호응도 ‘쑥쑥’

도서관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로 언제나 북적인다. 매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대별로 다양한 활동을 구성한다. 도서관 인근 대학생들이 봉사하고 싶다는 연락을 줘서 미취학 아동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수업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성인은 오전, 아이들은 오후에 프로그램을 구성해 추천으로 지원자를 선정할 만큼 인기가 많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초등학교 20명이 20주간 총 60시간을 연극배우의 지도하에 극본 읽기, 인형 만들기, 녹음하기 등 인형극을 직접 준비해서 연기까지 선보여 특별하다. 인형극 관람회에는 약 40명의 부모님도 초청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즐거워했다.

“현재 동아리는 사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인 동화 읽기, 독서, 뜨개 등이 있어요. 작년부터 성인 대상의 뜨개 동아리는 인기가 많아져서 또 언제 진행하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다채로운 활동을 계획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운영일과 운영시간이 제한되면서 대출 신청자의 집 우편함으로 배달해주는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관 때부터 진행한 이 서비스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덕분에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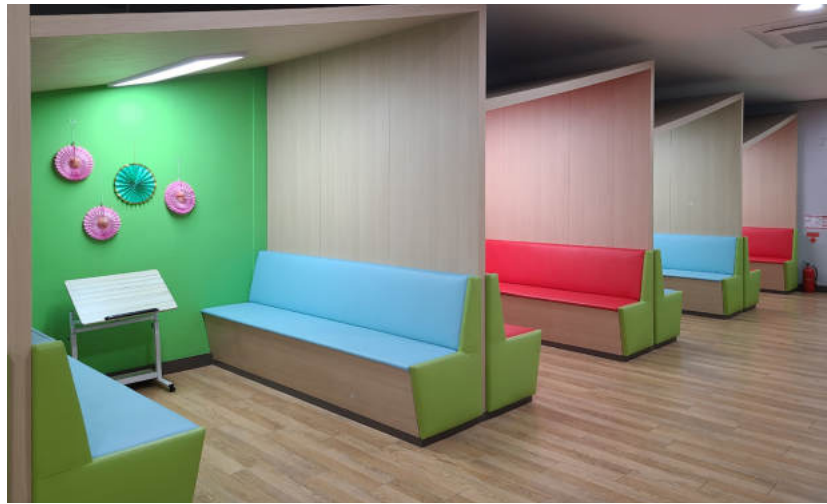
환경 친화와 지역민 소통의 교두보로

별빛누리는 도서관 인근 신갈천과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특성을 살려 올해부터 환경특성화도서관을 목표로 잡았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다육이, 마스크, 양말목 만들기과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기 등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해 환경 특화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

현재는 환경 도서에 집중한 북큐레이션을 상시 전시하고 있으며 환경교육활동가분과 책을 읽고 밀랍랩 나누기 프로그램과 환경 주제의 동아리, 정기적인 수업과 같은 다양한 연계 활동을 계획 중이다.

“용인 지역은 용인시 작은도서관 협의체와 잘 연계돼있어요. 도서관 정책과와 도서관 관장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팅 채널이 개설돼있고, 각종 워크샵과 교육을 진행해 저도 최대한 참여하고 있죠. 저희도 도움이 필요한 도서관 운영자들에게 언제든지 도와주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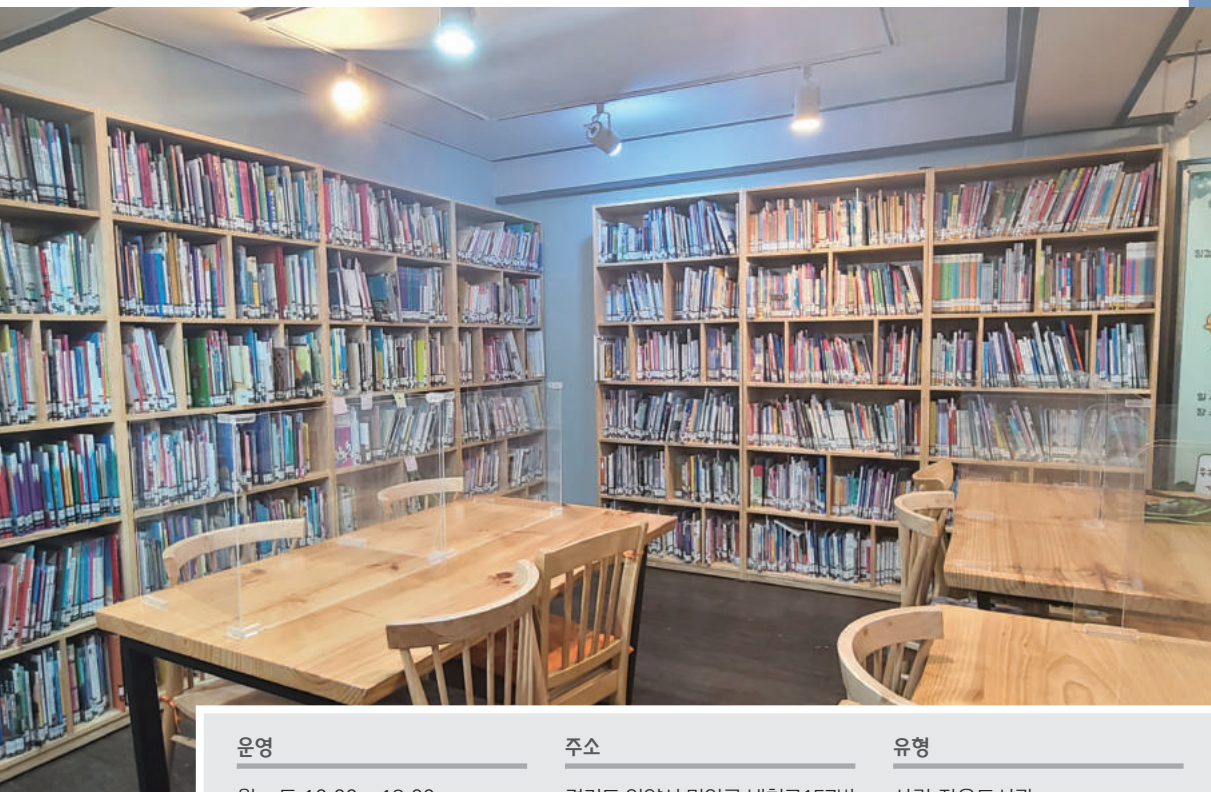
별빛누리는 사람들끼리의 교류가 있으면 공동체는 다름없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 거점이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주민들이 소통하며 온정을 나누는 심터를 꿈꾸는 별빛누리도서관은 앞으로도 모든 이를 품으며 오랜 기간 지역을 밝혀주는 별빛 세상을 만들어갈 기대해 본다.



# 아이들이 생각대로 그려 나가는 도서관

## 징검다리어린이 작은도서관

징검다리어린이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마땅한 독서 공간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교회 한쪽에 책과 컴퓨터를 마련한 것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도서관의 개념도 몰랐을 정도로 작게 시작한 공간이지만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주도해 현재는 지역사회에 없으면 안 될 문화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운영

월 ~ 토 10:00 ~ 18:00  
일 13:00 ~ 18:00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방천로157번  
길 12, (안양동) 신광교회 1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책으로 연결되는 꿈꾸는 사랑방



징검다리어린이는 지역사회 아동복지 시설도 없을 정도로 문화 기반이 열악한 곳에 주민들이 직접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한 이래 10년 동안 차곡차곡 독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한 2010년 이전부터 운영을 맡은 김문건 목사는 자연스럽게 관장도 맡게 됐다. 가뭄의 단비 같은 도서관은 설립될 때부터 아이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구성해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작가와와의 대화, 어린이와 어른 독서토론 교실, 대학교수와의 대화, 평소 책 안 읽어주던 아빠가 들려주는 동화책 이야기, 어린이가 팀장이 되는 책 축제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주로 구성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도서관도 계속 활발히 운영되고 있죠.”

도서관은 외벽부터 이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이들과 함께한 벽화 그리기와 뒷마당을 가꾸는 정원 만들기 모임으로 주민들이 직접 가꾼 작품들이 도서관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내부 1층에 서가와 뒷마당에 있는 야외 독서 활용 공간이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 서가와 어우러진 독서 공간, 예능 모임실이 있다. 다문화 가족이 많은 지역 특징을 살린 외국어 서적과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한국어 공부하는 강좌, 모임도 열린다. 어린이 영어 교실도 진행하며, 빼곡한 그림책과 청소년 도서들은 평소 독서와 거리가 멀었던 아이들도 점차 책과 가까워지게 만든다.

“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구비할 책을 선정하면서 평소에 아이들이 관심 두는 주제를 알아가고, 고

른 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한 권 한 권 모으다 보니 어느새 1만 2천여 권의 장서가 모였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어린이와 어른의 징검다리 문화 쉼터



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마을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든다. 대표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이 안양을 소개하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매년 4편씩 만들었고, 코로나19 시기엔 비대면으로 20편씩 만들어 총 50여 편이 넘는 영화가 제작됐다. 이 밖에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활동은 어린이 마음 합창단 등 다채롭다.

몰래 산타, 독서토론, 마을 주민 인터뷰하기, 어린이 마을 인문학, 독서 캠프, 독서 축제, 마을 바자회, 청소년 멘토링 모임 등 여러 가지 아동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된다. 어른들을 위한 활동으로 민주 시민교육, 시를 읽는 프로그램도 있다. 특히 마을 놀이터로 출장 나가 책을 대여해주는 이동도서관은 도서관을 몰랐던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그림책 연구와 수리산 돌아보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올빼미 학교라는 늦은 저녁 시간에 도서관 내부와 마당에 작은 텐트 안에서 책을 읽는 활동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징검다리어린이가 친

구, 가족, 이웃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이 된 것 같아 기쁩 따름입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김 관장은 협의회에서 안양시 축제와 안양 시내 소재의 대학교와 연계한 책 축제는 물론 작은도서관 협력 멘토링을 운영해 도서관 운영진들의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다. 10여 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덕에 작은도서관 발전 운영 경기도 도시사상 표창도 받았다. 김 관장은 작은도서관들이 앞으로도 공공성을 기반으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고민하고 삶을 나누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징검다리어린이 작은도서관. 미래 세대들이 청소년 리더십을 배워 도서관을 넘어 마을을 성장시키는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 독서만이 아닌 예체능 활동으로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

## 초대구름도서관

초대구름도서관은 교회의 유휴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서울시의 행복한 작은도서관 프로젝트에 선정돼 행복도서관 6호로 개관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현재는 책을 읽는 공간만이 아니라 어린이 농구대, 미끄럼틀, 탁구대 등을 갖춰 다양한 문화생활이 확대되고 독서문화가 정착되는 공간이다.



### 운영

화 ~ 금 10:00~18:00  
토, 일 09:00~17:00  
(월 휴관)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27나길  
13 (대한예수교장로회초대교회)  
2층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나누면 배가 되는 행복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 초대교회 2층에 자리한 초대구름도서관이 눈에 띈다. 주말에만 사용하는 빈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싶던 담임목사는 서울특별시와 한국교회연합에서 기획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젝트로 2014년에 개관했다. 도서관 설립을 주도하며 운영 전반까지 담당하는 구재원 담임목사는 관장도 맡게 됐다.

조성 과정에서 도서관 명칭을 주민들 투표로 6살 아이가 의견 낸 하늘과 꿈을 뜻하는 '구름'과 초대교회를 합한 '초대구름'이 됐다. 초대구름은 서울 구도심 주택 밀집 지역에 있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책을 보며 쉬고, 놀만한 곳이 없다. 그런 곳에 생긴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어른들에게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주민들은 생활 밀착형 독서 인프라 조성에 개관 전부터 이용 문의가 많았다. 초대구름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와이파이, 빔프로젝터 등의 IT 기기가 설치해 노트북과 태블릿으로 팝아트 그리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공간도 넓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기 좋아 운동기구를 활용한 활동도 구성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5~6시까지지만 활동을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오후에 주로 진행해 이용 시간이 끝나도 도서관 불은 꺼지지 않는다.





### 힘을 모을수록 커지는 문화 활동

원어민 영어 회화 교실, 마을밴드, 건강 샐러드, 뷔띠비즈 프로그램과 탁구, 커피, 역사, 과학, 기타, 노래 교실 등 9년 동안 수십 개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부터 중장년층들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나이를 불문하고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가장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은 기타와 원어민 영어 회화 교실이다. 성인,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 구분해 진행한 영어 교실은 원하는 이용자가 많아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음악 관련 활동이 많은 이유는 악기 연주에 일가견이 있는 구 관장 덕분이다. 강사로도 참여해 초대구름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한다.

“초반에는 청소년 대상의 기타 연주로 시작된 활동을 7년 이상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밴드로 발전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연주 방법도 몰랐는데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지금은 실력이 상당합니다.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주민을 위한 무료 음악회, 콘서트에서 공연하는데 이웃들이 모여 문화를 향유하고 즐거워하는 인기 만점 행사입니다.”

기타 말고도 카혼 같은 다양한 악기들을 갖추며, 장서도 여러 종류를 보유하고 있다. 주 이용자를 고려한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가 많고, 웹툰과 만화도 서가 한 편에 빼곡하다. 신청 도서를 최대한 갖춘 덕분에 성인들도 좋아하는 도서들이 이용자를 반갑게 맞이한다.

### 모두가 즐겨 찾는 열린 공간으로

초대구름의 구 관장은 작은도서관끼리 협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역 작은도서관들이 모여 강동작은도서관협의회를 설립했다. 협의회로 된 지 2년 됐으며 현재 12개 관이 속해 책수다와 작은도서관 큰잔치를 열고 있다.

초대구름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만큼 바쁜 도서관을 1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와주고 있다.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구성된 운영진들의 얼굴은 언제나 밝다. 도서관 문을 활짝 열면 마을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좋다고 칭찬하는 이용자들에게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선도하며 천호동의 소중한 마을 이야기를 기록하는 초대구름도서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지역사회와 더불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노래하다

##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올해 10월이면 33주년을 맞이하는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오랜 기간 운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도서관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는 주민들의 힘 덕분이다. 작은도서관의 필요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펼치며 후원과 더불어 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



### 운영

월 ~ 금 10:00~18:00  
토 10:00~16:00  
(일 휴관)

###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78,  
(신림동) 난향꿈동지 2~3층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의 보이지 않는 손들



1989년 10월 3일, 서울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에 지은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은 관악구에 처음 개관한 작은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 등록법령이 생기기도 전에 설립돼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문화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새숲은 경인지역도서관학과의 연합회 활동하던 학생들과 난곡 주민들이 뜻을 모아 작은도서관을 만들며 역사가 시작됐다. 개관 당시에는 3천 여권의 장서로 야학 건물에 5평 남짓한 작은 교실을 빌려 운영했으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 번의 이사를 걸쳐 현재는 서울시 소유의 건물을 유상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 공간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민들의 도움이 컸다. 장서가 많아지고 이용자도 늘면서 도서관 확장이 필요했는데 주민들과 함께 구청장과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큰 노력을 쏟아부었다. 덕분에 현재는 80평이 넘는 면적에 2~3층을 사용 중이다.

2층은 주로 책을 대출, 반납하며 독서하는 곳으로 1만 7천여 권의 장서가 서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져 장서도 다양한 문제를 다룬 환경, 생태, 인권, 평화 주제의 도서가 주를 이룬다. 북카페와 교육실, 영유아방 등으로 구성된 3층은 프로그램이나 동아리같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책도 읽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자주 시간을 보낸다.

이명애 관장은 새숲이 1주년일 때 도서관을 방문해 인연을 맺게 됐다. 작은도서관에는 단순 이용자만 있기 어렵다고 말한 이 관장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 만큼 운영진은 실무자 중심으로 자리를 채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만남을 통해 끝없이 성장하는 공간**



새숲의 일주일은 아이와 학부모들 모두 만족할만한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으로 바쁘게 흘러간다. 성인 프로그램과 독서동아리, 인문학 모임뿐만 아니라 6월에 ‘노래하는 꿈틀이들’ 단체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공연을 진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올해는 연합 독서회와 작가와의 만남, 기후 위기를 함께 생각해 보는 ‘슬기로운 지구인 생활 안내’ 프로그램, 어린이 인권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으로 동네 아빠 워크숍이 있다. 자녀가 있는 아빠들이 아이들 성교육을 해줄 수 있게 교육을 진행해 좋은 호응을 받았다.

“아빠들한테 교육의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했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했는데 최근에 그 프로그램 좋았고, 요즘 아빠들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새숲은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이 많다. 도서관은 책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 만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도 도서관을 통해 사람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다. 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관악구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관악공동행동, 난곡난향도시재생사업과 지역연대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데 함께 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동네에서 처음 시작한 새숲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 자연스레 이용자 수도 증가했다.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만남을 이어가는 소통의 장이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편안한 공간인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은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만들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와 나누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별의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편안한 안식처

## 별별작은도서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브릿지센터 1층에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별별작은도서관이 있다. 사단법인 제일청소년회에서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문을 열었다.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은 지역에 교회 건물 일부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운영

화~일 09:30~20:00  
(월 휴관)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3길 10, (고잔동) 브릿지센터 1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이웃과 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제일청소년회는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을 돕기 위해 안산제일교회에서 설립한 법인이다. 교회 공간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랑방으로 만들고자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2018년 9월에 문을 열었고, 처음부터 함께한 김영주 국장이 도서관 운영 전반을 맡고 있다.

“종교적, 정치적, 보편적 가치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단법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단원구는 1인 가구와 다가구가 밀집해 있고 별다른 문화공간이 없는 탓에 이용자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하죠. 코로나19 때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별별을 많이 방문해서 좌석 일부를 개인이 공부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바꿨어요.”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소그룹실은 최대 4명까지 함께 공부하고 책도 읽을 수 있어 이용자들이 애용하는 공간이다. 프로그램실은 각종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 회의를 진행하며, 휴게실은 간단한 식음료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잠시 쉬어가는 문화공간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도서관 메인 공간은 성인, 아동, 유아 코너로 서가를 나누고, 잡지와 신문도 비치해 취향에 맞게 골라서 읽을 수 있다.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책을 대출, 반납할 수 있으며 연체하더라도 대출한 책을 모두 반납하면 페널티 없이 바로 대여가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는 도서관을 지향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이 길다. 월요일 휴관을 제외하고 주말까지 운영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동절기에는 8시까지 운영한다.

### 도서관 운영의 버팀목인 별별지기

도서관 운영에 큰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 ‘별별지기’는 현재 30여 명이 활동한다. 이들은 프로그램도 지원하는데 청소년 대상 활동을 많이 구성하는 만큼 대부분 인기가 좋다. 그중 하나인 서울예술대학교 학생과 중고생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별별 영상 제작소’는 시나리오, 촬영, 편집까지 영상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을 배우고 상영회까지 진행해 청소년들이 성취감과 협업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계기가 된다.

이외에도 보름 음식 만들기, 얼씨구절씨구 우리 문화 알기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인 대상으로는 오페라 가수가 직접 와서 공연하고 설명해 주는 오페라 읽어주는 선생님이 인기가 많아 연례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역 초등학생 35명과 5개월간 63시간 진행한 ‘벽을 넘은 담쟁이 꿈의 학교’는 가장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마을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나눔’이라는 주제로 알뜰시장을 열어 물건과 아이들이 직접 담긴 레몬청을 판매해 주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좋아하는 이웃들을 본 아이들이 부딪힘을 느끼더니 더욱 열심히 참여했다.

알뜰시장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복지기관에 후원하고, 뮤직비디오 형식의 ‘나눔’영상을 만들어 상영회도 열었다. 다양한 나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며 마을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뜻깊은 활동이다.

### 배움터를 넘어 누구나 드나드는 마을의 쉼터로

별별은 안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되어 도서관 운영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작은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김 국장은 올해 경기도도서관협회에서 진행되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에 참여해 새로 개관한 도서관의 멘토로 활동했다.

지역의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자 늘 주민들을 위해 나누는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는 별별은 운영진들의 노력으로 마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 단원구 문화의 꽃을 더욱 활짝 피워낼 별별작은도서관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 청포도처럼 송이송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 쉼터

## 청포도 도서관

청포도 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들과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 친화적 공간을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운영

화~금 10:00~18:00,  
토 10:00~19:00, 일12:00~18:00,  
(월 휴관)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63,  
(만수동)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 운영의 원천이 되는 자원봉사자

만수동에는 아파트와 학교들 사이에 도란도란 정겨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청포도 도서관이 있다. 구원의 기쁨교회에서 설립해 관장과 자원봉사자의 열정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주민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고 소통하며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던 유성미 관장은 아이들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교회로 모여 몇 권 없는 책을 돌려가며 읽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도서와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했다. 신도들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남동구 평생학습관에서 실천 리더 활동을 했던 사람이 운영위원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사람이 운영에 힘써주고 있다.

청소년 지도사로 활동 중인 목사와 행사 때마다 도움을 주는 교회 신도들도 있지만 프로그램과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해졌다. 운영진은 여러 방면으로 돌파구를 찾던 중 2021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컨설팅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운영 전반에 큰 도움을 받았다.

유 관장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컨설턴트와 항상 기꺼이 두 팔 걷어 도움 주는 분들 덕분에 지금의 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현했다.

도서관을 이끌어가는 운영진들은 각자 자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오랜 시간 함께

한 덕분에 이들은 웬만한 전문사서 부럽지 않게 발전했다. 실제로 도서관 한쪽에 활동하며 취득한 여러 자격증과 수료증이 자랑스럽게 전시돼 있다. 중요한 직책을 맡아주는 든든한 운영진들 덕분에 원활한 운영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런 열정이 이용자에게도 전해진 것인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책을 통해 동기부여가 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기도 한다. 도서관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 계발까지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 막 자격증을 딴 강사들이 이곳에서 쌓은 경력으로 영역을 더 넓혀 가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그게 꼭 책이 아니더라도 저희와 계속 발전하고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관장인 저 또한 배움에 더욱 부지런해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 청소년 재능기부로 만들어 가는 문화사랑방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청소년 대상의 활동도 활발하다. 인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터전동아리는 청소년 자기 주도형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주민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봉사활동으로 화분을 만들고 받아시켜 동네 노인에게 나눠줘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청소년들이 가르쳐주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미술과 기타 동아리를 진행 중이다. 기타 동아리는 강사와 수강자 모두가 청소년이라 서로 도와주고 음악 관련 지식도 나누며 친구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 대상의 활동이 많은 이유는 도서관 비전에 따라가기 때문이다.

“청포도 도서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활동을 진행하고자 많이 신경 쓰죠. 청소년 지도사인 목사님도 여러 노력을 가하고 있어 도서관 방향이 청소년에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유아 대상의 엄마랑 함께 읽는 그림책 이야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대상의 인성티움 마을학교, 시니어 프로그램인 그림책으로 나누는 독서 치료 등 다양한 연령대의 프로그램으로 청포도 도서관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운영진들은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자기 계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어두운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내는 청포도 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본다.

# 사랑이 모여 피워낸 문화공간

## 책사랑내서마을도서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자리한 책사랑내서마을도서관은 아이들이 도란도란 책 읽는 소리가 매일 새어 나오는 공간이다. 언제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며 오랜 기간 주민 곁을 지켜온 도서관은 오늘도 활짝 문이 열려있다.



### 운영

월~금 09:00~18:00,  
토 10:00~16:00,  
(일 휴관)

###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북로 202,  
(관리동) 3층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문화가 넘치는 내서마을을 꿈꾸며

책사랑내서마을도서관은 이웃들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삶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공간이다. 오전에는 어머니들이 자기 계발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모여 책을 읽고 또래 친구들과 고민과 생각을 나누며 우정을 쌓는다.

도서관은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로 1988년 6월 마산 남성동에 민간도서관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푸른내서주민회라는 마을공동체를 설립하고 도서관 필요성을 공감하는 마을 주민들과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장소를 임대받아 아파트 지하에서 시작한 도서관은 주민들과 가깝게 교류하는 마을도서관으로 변하며 누구나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

현재는 약 30평 면적에 2만여 권의 장서를 갖췄다. 유아, 아동과 청소년, 성인 세 분류로 서가를 비치하며 유아 코너에는 매트와 낮은 책상을 놓아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책을 읽고 놀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 코너에는 일반 도서뿐만 아니라 학습만화와 영어원서, 청소년 정기간행물도 배치해 바쁜 학업 탓에 도서관과 점점 멀어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도서들로 책장을 가득 채웠다.



성인 코너는 도서 열람 외에도 프로그램과 영화감상 등에도 활용하고 그밖에 신간 도서, 윤독 도서 (한마을한책읽기), 만화잡지류, 정기간행물 코너를 따로 배치했다. 현재 코로나로 줄었지만 한 달 평균 이용자 수 800명, 대출 권수 1,000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연주 사서는 “35년째 운영하는 만큼 도서관과 같이 성장한 이용자가 방문하기도 해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방문했는데 자기를 기억하냐며 먼저 인사해줬을 때 정말 반갑고 기뻐요. 틈날 때마다 도서관에 들러 시간을 보내는 이용자들을 보며 사서로서 보람을 느끼죠. 이용자들도 재능기부, 프로그램 진행, 행사 참여 등으로 도서관을 위해 기꺼이 손을 보태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내서마을 자랑이 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도서관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덕분에 2020년 창원시에서 개최한 평생학습시설 우수기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선희 사서는 “내 일처럼 힘써주는 여러 관계자, 이용자, 운영위원회, 동아리 회원, 자원봉사자, 강사분들 덕에 상 받을 수 있었어요. 이분들을 믿고 새로운 사업 공모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시도하다 보니 이런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성인 대상으로 책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함께 읽어 생각을 나누는 책놀이 동아리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준비해 같이 공부하는 역사마루 동아리가 있다. 꼭 역사와 관련된 것 외에도 정치적, 국제적 문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의논을 주고받는다. 이 회원들은 프로그램 강사 재능기부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고, 운영에 도움 되는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제안 등 조언을 아끼지 않아 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내서지역 5개 작은도서관이 모여 푸른내서주민회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정보 공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하기에 규모가 큰 사업도 함께 진행해 주민들의 문화를 더욱 책임지고 있다.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앞으로도 문화 쉼터의 역할로써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도서관은 마을공동체가 싹틀 수 있어야 해요. 책을 통해 지식을 채우고 정보를 공유하며 올바른 삶의 방향을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키워진 역량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지역의 만남의 장 역할을 하며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책사랑내서마을도서관. 계속해서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을 만나며 지역공동체로 성장할 밝은 앞날을 기대해본다.

# 온 마을이 함께 아이 돌보는 도서관

## 푸른나무 작은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푸른나무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이다. 학교 후 갈 곳 없는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된 도서관은 어느새 만남, 소통,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며 사람의 온기를 전하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운영

월~금 13:00~17:00,  
토 13:00~16:00,  
(일 휴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원1로 16,  
(푸르지오1차) 관리사무소 2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제2의 학교가 돼주는 방과 후 놀이터

푸른나무는 ‘도서관 중심으로 아이들이 커야 한다’는 신조로 도서관을 기준으로 조치원읍을 문화 중심 마을로 만들고 있다. 동네 주민들에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 아이들의 사랑방을 만들자’는 초대 관장의 제안으로 2008년 11월에 조성됐으며, 아이가 있는 가정이 많아 주민들이 도서관을 반기며 서슴없이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열정과 땀으로 힘차게 운영해온 푸른나무는 올해 15주년을 맞았다. 5명의 운영위원과 25명의 자원봉사자가 모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매달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선정을 다수의 의견으로 정하는 등 운영 관련 의견을 취합한다.

긴 시간 동안 운영진들이 거쳐 가며 도서관은 계속해서 성장했다. 관장도 바뀌었지만 아이를 위한 신조는 이어져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이민선 관장은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활기찬 도서관을 만들어가고 있다.

“도서관 개관하기 전에 독서모임을 했는데 회원들이 작은도서관이 마을에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지금의 푸른나무 작은도서관이 탄생하게 됐죠. 아이들과 갈 곳이 없었는데 사랑방 역할이 되어주는 도서관 개관 소식을 듣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성장하는 아이들 꿈터

도서관 이름인 ‘푸른나무’는 아이들에게 나무가 아낌없이 주는 선물이란 의미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선정했다. 아이들은 학원 가기 전과 방학이 되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세종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마을방과후 프로그램과 마을학교 등 학교에서 해소할 수 없는 교육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 다채롭게 운영한다.

운영진들은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과 다양한 경험을 늘려주기 위해 프로그램이 좋다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많이 다녔다. 그 과정에서 강사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 세종시청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덕분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21 방과후학교 우수사례’에도 선정됐다.

이민선 관장은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지역 아이들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들 욕구 조사를 반영했어요. 이 경험을 토대로 엄마들이 배워서 재능 기부 할 수 있도록 지역 강사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해 배운 것을 나누는 과정을 실천했죠.”라며 선정 비법을 소개했다.



푸른나무는 평일 오전에는 성인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도서 열람 시간으로만 운영하다가 오후 5시부터는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토요일도 오전은 프로그램, 오후는 열람 시간이다. 봉사자들이 항상 자리를 지켜 부모들도 안심이다.

유치원생부터 청소년, 성인 대상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쿠킹클래스와 과학수업은 올해도 진행 예정인 인기 프로그램이다. 역사 수업을 참여하고 해당 장소를 탐방해 아이들이 생각하는 역사를 토론하는 역사탐방은 가족들과 함께해 부모들의 반응도 좋다.

소요동아리와 뜨개 동아리도 운영 중인데 뜨개 동아리원들은 마을 교사로도 활동할 정도로 솜씨가 좋다. 이렇듯 다채로운 활동들로 독서문화를 전파하며 오랜 기간 운영한 만큼 주민들은 편하게 도서관에 모여 소통한다. 운영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자연스럽게 지역 문화 공동체로 거듭났다.

“자원봉사자와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봉사하며 봉사자의 힘든 점도 알아야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일을 넘기고 관장이라는 이름만 원하는 분을 봤는데 금세 그만두시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의논하면 금세 성장한답니다.”

운영진들이 힘을 합쳐 지역주민과 아이들에게 많은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푸른나무 작은도서관이 조차원을 주민들의 독서문화를 이끌 앞날을 기대해본다.

# 힐링과 소통으로 기쁨이 배가 되는 곳

## 다운작은도서관

소통과 공감이 어려운 사막 같은 도시 속에서 이웃이 서로 만나 소통하고 사람 사는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도서관이 있다. 바로 서울시 강동구 길동 주택가에 위치한 다운작은도서관이 그 주인공. 다운작은도서관은 집 이외에 제2의 공간이 주는 삶의 활력소이자 도시 속 마을공동체로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운영

화~토 09:00~18:00,  
일 13:00~17:00,  
(월 휴관)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1길 52,  
(길동) 2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도서관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다운작은도서관은 2017년 2월에 개관해 지금까지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노인숙 대표는 꿈과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도서관 개관을 결정했다.

다운이 강동구 주민들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운영진이 되는 긍정적인 순환 덕택이다. 박천숙 관장도 다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주민들은 도서관에서 문화 활동을 하며 만남을 이어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프로그램과 동아리도 이용자와 대화를 통해 원하는 활동 위주로 기획하는 덕에 캘리그라피, 손뜨개, 그림책 연구, 환경 모임, 클래식 악기동아리 등 다양하다. 서울시교육청 지원으로 장기화된 코로나로 벌어진 교육격차 해소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 도담도담 마을학교를 작년부터 2년째 매일매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로 아이들은 심리적 불안과 위축,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외에도 작가와의 만남, 시와 산문 글쓰기, 그린라이프 문학과 환경치유, 홈 바리스타 체험 활동, 그림책 감정 코칭 전문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책 편찬하기, 단편영화 만들기, 독립출판 등도 기획 중이다.





“글쓰기 프로그램과 동아리에서 책을 만들었는데 시작은 작은 모임일지라도 뜻이 맞는 사람들과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저도 2018년에 3명의 관장이 모여 책모임으로 시작한 게 2년 뒤에 강동작은도서관협의회로 창립해 현재는 회장으로 활동 중이거든요. 함께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 대표는 상담 코칭, 육아 코칭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 다운만의 특징인 감정 그림책 특화도서관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 한몫하고 있다. 코로나19로 6개월가량 휴관 중이던 2020년에도 유튜브 방송과 온라인 화상채팅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을 이어 나갔다.

“문을 잠시 닫고 있었을 때도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책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다운 작은도서관의 약칭인 ‘온다 꼬마 사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많은 사랑을 받아서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 활력을 불어넣는 마법의 연주

도서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으며 맞벌이가정도 많은 만큼 아이와 육아에 관심을 쏟는 다운은 주민들에게 기꺼운 존재다. 서로 도우려는 이용자들 덕에 자연스럽게 공동 육아 커뮤니티가 생겨 부모들은 안심하고 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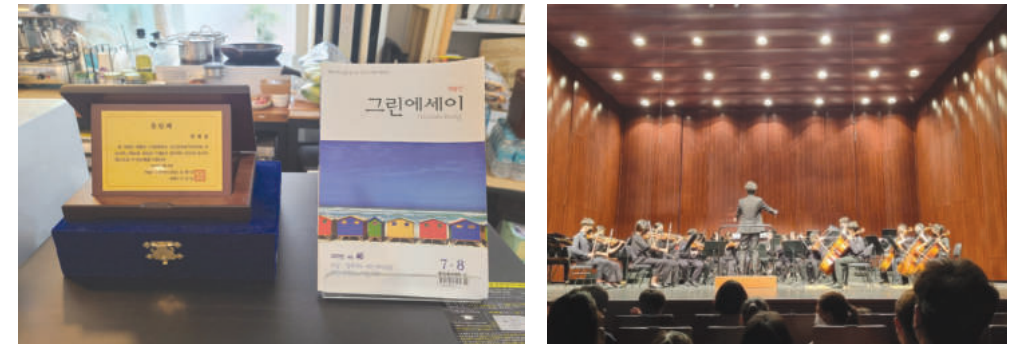


또한 클래식 나눔연주 봉사단인 다운오케스트라는 양로원,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구석구석 찾아가 나눔 콘서트를 진행한다. 클래식 멘토를 포함한 외부 인원까지 합치면 35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매주 일요일에 모여 연습하고 있으며 합을 맞춘 연주는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있다. 단원들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보람을 느껴 더 많은 이웃에게 질 좋은 연주를 들려주고자 노력한다.

현재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고자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소상공인 후원을 위한 제 5회 다운오케스트라 콘서트>를 기획했다.

“도서관은 치열하고 삭막한 사회 속에서 지칠 때 문화를 통해 이웃과 공감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사회에 나아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 씨앗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운은 ‘모든 좋은 일이 다 온다’는 순우리말로 이름대로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힐링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구나 삶의 가치와 활력을 얻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운작은도서관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따뜻함을 나누고 있다.



# 골목골목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작은도서관의 울림

## 짱뽕이어린이도서관

지역아동센터에서 기증받은 도서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2003년 문을 열고 지금까지 지역을 즐거운 문화로 물들이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바로 짱뽕이어린이도서관으로 주민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고 소통하며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운영

월~금 10:00~18:00,  
(토, 일 휴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112번길  
25,(청학동) 1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청학동에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을 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은 연수구의 원도심이다. 1990년대에 형성된 동네의 골목길 사이에 있는 짱뽕이어린이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친밀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문화 교류를 이어온 지 어느덧 20여 년이 됐다. 이소운 관장은 2016년부터 자원활동가로 참여하다 작년부터 관장직을 맡았다.

“‘짱뽕이의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1999년 만화책 주인공 이름이 짱뽕이예요. 짱뽕이처럼 아이와 어른들 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름이 지어졌죠. 단순한 도서관이 아닌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며 사람들을 이어내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름처럼 어른과 아이들을 이어주는 활동으로 주로 구성한다. 아이들이 많지 않고 이주민 가정과 어르신이 많은 청학동에서 여러 세대 간의, 혹은 여러 계층 간의 교류와 소통을 끌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주민 가정과 함께하는 보드게임과 요리 프로그램,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하는 우쿨렐레 강좌와 발표회, 50세 이상 성인들을 위한 그림 그리기 등이 그 예다. 올해 진행한 김중석 작가를 초청해 2절 지 크기 종이에 그림 그리는 ‘막 그리기’는 신청자가 많아 똑딱이 마을 공방을 빌려서 진행할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이도 어른도 큰 종이에 막 그리면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간이었다.

## 마을이 살아 숨 쉬는 다채로운 문화 놀이터

짱뚱이는 인천여성회 연수지부에 소속돼 더불어 사는 가치, 모든 존재가 어우러지는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평등, 인권, 평화 위주로 도서를 선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에서 인권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초중고 학교에서 마을인사화학교육협동조합화 함께 마을 교사 활동을 하고, 그 외 여러 시민단체와 연결되어 사회문제에 관심 두고 실천한다.

가장 오래된 동아리 '오른발 왼발'은 2014년부터 장애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림책 읽고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비 오는 날의 수채화'는 짱뚱이를 거점으로 진행되는 청학동마을넷의 동아리로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그림을 그린다. 그 외에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재주 많은 꿈', 독서동아리 '함께 삶', '다정한 그림책' 등이 있다.

지역공동체 역할을 주도하다 보니 인천광역시 2021년 우수 운영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개관부터 함께한 늘푸른교실 시민단체와의 협력 활동과 초등학생들이 마을 총장과 인근 가게 사장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림 그리며 소감을 작성하는 '골목골목 꽃이 피네' 마을사업 덕에 수상의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청학동마을넷 활동의 일환으로 2년간 진행했는데 마을의 소박하지만 정겨운 이야기가 담겨있어 큰 감동을 가져왔다. 동네 사람들이 발표회에 많이 모여 얼굴도 모르던 주민들이 서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짱뚱이는 조용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가 들리는 곳이다.



## 소통의 장이자 치유의 쉼터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관장 포함 6명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진행하며 자발적으로 활동한다. 운영위원들이 사회문제와 마을 활동 모두 관심 두다 보니 인천여성회 연수지부, 마을인사화학교육협동조합에 소속된 활동가들도 많다.

짱뚱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활동해 같이 성장하고 돌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에 소통의 공간 이면서 사회적 목소리도 내는 역할도 한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힐링되는 그림 그리기와 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짱뚱이어린이도서관은 앞으로도 차별 없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청학동의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존재로 마을에 자리매김 할 앞날이 기대된다.

# 살기 좋은 주거환경 테마 작은도서관

## 서울하우징랩SH

시민들이 모여 주거 의제를 고민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대안을 찾는 작은도서관이 있다. 서울하우징랩SH작은도서관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지역민들에게 공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함께 독서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운영

월~금 10:00~18:00,  
(토, 일 휴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당산동3가, 당산 SH VILLE)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주거 공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 단지 내에 아이들의 기분 좋은 재잘거림이 울려 퍼지는 서울하우징랩SH작은도서관이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유공간으로 다년간 미사용 되고 있던 아파트 단지 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2018년에 재탄생시켜 개관했다.

서울하우징랩 전체면적은 약 150평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사용한다. 넓은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박호연 팀장은 “주거, 건축, 도시를 주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누구나 살기 좋은 서울을 상상하는 시민들의 공간이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테마 도서를 비치했죠.”라며 최소한 주제를 특화로 정한 이유를 전했다.

도서관 주변에 아파트와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있어 주 이용자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과 아이들의 보호자다. 영화관처럼 구축해놓은 공간에서 영화 상영하는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진행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체험학습처럼 도서관을 방문해 그림책도 읽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지원 나온 남미란 씨는 도서관을 주로 관리하며 아이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같이 와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그림책을 듣는 모습을 보면 부듯하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연합회와 연계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장서는 테마 도서뿐만 아니라 어린이 도서도 최대한 구비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시리즈 도서는 신간이 나올 때마다 구매하는 데 구매가 늦어지면 아이들이 직접 신간 도서를 요청해오기 때문이다. 독서 욕구에 대한 요청이니만큼 도서관에서 최대한 구매해 아이들이 책과 가까워지도록 돕는다.

도시와 주거 관련 도서, 국토연구원 등 연구 발행물까지 갖추고 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위해서도 노력을 끊임없이 쏟는데, 특히 서울을 살아가는 청년의 고민을 담은 영화를 함께 시청해 많은 청년에게 공감을 끌어냈다. 이외에도 도시와 건축 주제의 독서 모임을 구성해 당산동 일대는 독서문화가 활짝 피어나는 중이다.

### 사회적 기여로 도서관이 성장하는 곳

회의실, 다목적홀 등 여러 공간을 대관하고 있다. 주거와 사회적 경제 분야 활동을 지원하는 만큼 서울하우징랩의 존재 목적과 맞닿아 있는 사회적기업과 주거 관련 단체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관해준다. 특히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대를 마련해 갤러리 잡지 수익의 절반을 노숙자 자립을 위한 판매금으로 사용한다. 운영진들은 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다.



운영진들의 공통 목표는 도서관 인근 주민들이 10분 거리 내에서 책을 읽고 쉬어갈 수 있는 복지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서울하우징랩이 좋은 쉼터 역할이 되길 꿈꾸며 독서문화를 전파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한다.

남미란 씨는 “현재는 저희 작은도서관으로 지역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가지고 있는 장서와 공간을 십분 활용해 이용자가 더욱 늘어나면 각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독서활동을 진행할 테니까요.”라며 도서관의 방향을 전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지역의 환경을 구축하고 이웃과의 연대를 넓혀 공동체 활동이 많아질수록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 믿는 운영진들은 서울하우징랩이 그 역할을 하는 중심점이 되기를 바란다.

주거가 단순히 내가 사는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서울하우징랩.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도서관을 통해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03

Part.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이야기

---

작은도서관 비대면 활동 소감 공모전

도서관 3행시 이벤트



# 작은도서관 비대면 활동 소감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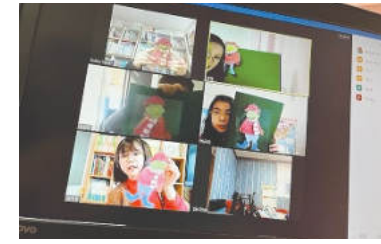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비대면 활동 소감 공모전은 제58회 도서관 주간을 맞이해 올해의 표어와 연계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이벤트이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도 작은도서관과 잇게 해준 다양한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여러 활동 중 우수 선정 도서관을 소개한다.

도서관	다솜작은도서관
활동명	- 스토리가 있는 영어(초등1~3학년) -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초등 4~6학년) - 디지털 드로잉 입문교실(성인)
활동종류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연령 및 주제 (초등1~3학년:영어, 초등 4~6학년:한국사, 성인:디지털 드로잉)
참여인원	각 16명(회당 8명 모집)
활동소개	2022년 2월에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 소감

### - 스토리가 있는 영어 (초등1~3학년)



### -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초등 4~6학년)



### - 디지털 드로잉 입문교실 (성인)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연령대별로 호감 가질 만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재능기부 강사님들을 섭외하여 진행했었는데, 인원 모집도 하루 만에 모집이 종료될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다음번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이용자가 있을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진행이었다.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어오던 대면 수업이 전면 취소가 되었고, 2021년부터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초반에는 비대면이 익숙지 않아 강사를 포함한 운영자, 이용자 모두 다소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벌써 코로나 시대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현재는 대면만큼이나 익숙해졌다. 다만, 비대면이라 직접적인 활동을 주로 해야 하는 수업에 있어서는 다소 제한이 따르다 보니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거주지와 도서관과의 거리와는 무관하게 포항시 거주자이면 누구나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비대면 프로그램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 전 시대로 하루빨리 돌아가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해본다.

도서관	삼성도서관
활동명	맹자강독
활동종류	프로그램 진행
참여인원	약 1만 명
활동소개	<p>비대면으로 진행한 &lt;역사고전 깊게읽기-『맹자』 강독&gt;을 통해 본 비대면 강의의 필요성 - 2020년 4월 『맹자』를 유튜브로 강독했었다. 몇천 년을 전해져 온 고전 텍스트를 통해 공부의 즐거움과 맛을 아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8회 걸쳐 진행한 유튜브 맹자강독은 이후에 비대면으로 방법을 바꾸어 2021년 4월까지 장장 2년에 걸쳐 완결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강의라도 하지 못했더라면 프로그램 참여 누적 인원 천여 명에 가까운 (유튜브 시청 포함 11,000여 명) 동양고전 마니아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다.</p>
소감	<p>비대면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튜브를 통한 강좌 업로드다. 유튜브 업로드는 저작권에 대한 강사님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 후 촬영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고 촬영과 편집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유튜브 업로드를 완료한다. 자료가 계속 남아 있어 듣고 싶을 때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강사님의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 많은 강좌를 업로드하기 힘들었다.</p> <p>두 번째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인데, 사서들이 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과 비대면 수업을 처음 접하는 이용자분들에게 이용법을 안내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어르신 참여율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오랜 시간 ZOOM 이용법을 알려드리고 방을 개설해 참여하는 테스트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처음에는 사용법이 어렵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기도 했지만, 꾸준한 사전 테스트와 일대일 설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수월하게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p> <p>작은도서관 특성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했었는데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좋은 강의를 더 많은 분들이 수강할 수 있게 됐고,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한몫하여 대면으로 진행할 때보다 참석률과 호응도가 높아졌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을 꾸준히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다. 지금은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진행한 프로그램 경우 신청자가 90명 가까이 됐다.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우리 같이 예산도 적고 강의 장소도 없는 작은도서관에는 큰 기회가 된다. 앞으로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고 싶다.</p>

도서관	나눔도서관
활동명	그림책으로 보는 음악 이야기 & 재미있는 영어 그림책
활동종류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인원	각 프로그램당 7~9명
활동소개	<p>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그림책으로 보는 음악 이야기'와 '재미있는 영어 그림책' 활동했다.</p> <p>'그림책으로 보는 음악 이야기'는 상반기는 악보 보는 법을 몰라 학교 음악 시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게임을 읽는 법부터 시작했다. 이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음악을 들으며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 음악이 탄생하게 된 배경 등을 그림책과 영상으로 만났다.</p> <p>'재미있는 영어 그림책'은 영어에 흥미와 관심을 주기 위해 아이들이 그림과 주인공의 표정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만한 책들을 선정했다. 책을 읽고 주요 단어를 말해보기도 하고 그리거나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p>
소감	<p>'그림책으로 보는 음악 이야기'를 통해 처음에 게임을 읽는 법을 배운 친구는 "음악 시간에 선생님께 게임을 적어달라고 하기 부끄러웠는데 이젠 잘 알게 됐어요."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우리가 광고나 길에서 익히 들었던 음악이 "이 작곡가가 한 거구나"라며 깨닫는 즐거움을 느꼈고, 그림책으로 음악의 탄생 배경을 알게 되니 음악 감상하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었다.</p> <p>영어 그림책은 아이들마다 영어의 수준이 달라서 책 선정에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림이라는 매개가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내용의 반전들이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p> <p>두 프로그램 다 강사분이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초반에는 ZOOM 실시간으로 진행했으나 강사와 이용자의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수업이 늦어지고, 늘어져서 선생님들께 사전 녹화를 부탁드려 영상을 미리 받아두는 방식을 선택했다.</p> <p>프로그램 시간에 도서관 운영자가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했다. 아이들이 모두 참여하면 사전 녹화 영상을 함께 보며 수업했다. 참여하지 못한 친구가 원한다면 사전 녹화 영상을 전송해 주기도 했다. 저마다 아이들의 속도가 다르니 영상을 멈춰가며 하고, 운영자가 그때그때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반응해 수업은 무리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다.</p> <p>우리 도서관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거리두기로 프로그램 방식이 일부 비대면으로 바뀌었으나 비대면 수업을 통해 강사분들은 봉사를 꾸준히 할 수 있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꼭 이어갈 수 있어서 강사분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방식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비대면 방식을 계속 이용하려 한다.</p>



# [ 도서관 3행시 이벤트 ]



작은도서관 3행시 이벤트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독서를 연상하는 작은도서관과 책 관련 이벤트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또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감정, 생각 등 자유롭게 3행시로 표현한 글을 공모했다. 작은도서관 이용과 독서를 유발하는 재치 있는 3행시들을 소개한다.

## ★ 대상 ★

### 대상 | 전\*영

- 도** 도서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 서** 서서히 지식을 얻어가는 사람부터, 책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까지.
- 관** 관심과 지성이 빛나는 작은 도서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주인공은 이용자라는 의미입니다.

## ★ 우수상 ★

### 우수상 | 노\*남

- 도** 도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 서** 스스럼없이 편하고 포근함을 안겨주는 힐링의 소통 공간
- 관** 관계 형성이 좋아져서 하하호호 웃음이 넘치는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소통의 공간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좋아요.

### 우수상 | 전\*선

- 도** 도서관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으니까!
- 서** 서서히 갖고 있던 생각을 넓힐 수 있으니까!
- 관** 관념과 사상을 넘어 누구나 지성을 즐길 수 있으니까!  
도서관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의 장점과 의미를 담았습니다.

### 우수상 | 윤\*주

- 도** 도서관 가져! 책을 보면 상상력과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감동도 받을 수 있어.
- 서** 서둘러 가야지. 보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
- 관** 관심 있는 다양한 책을 읽고 나면 마음의 양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느껴져.  
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 ✦ 참가상 ✦

### 참가상 | 최\*규

**도** 도시와 농촌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작은도서관 남녀노소 누구나

**서** 서로가 마음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곳

**관** 관계 형성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많이 이용하자는 마음으로 작성함

### 참가상 | 유\*빈

**도** 도대체 나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 대한민국 청년이다.

**서** 서두르지 말라고 늘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나는

**관** 관심이 가는 다양한 책들을 도서관에서 읽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꿈을 위해 천천히 나아가자!

### 참가상 | 손\*지

**도** 도서관 친구는 나에게 그냥그냥 책을 빌려주는 착한 내 친구

**서** 서점 친구는 꼭 무언가를 줘야 책을 빌려주는 알미운 내 친구

**관** 관심 더 가는 내 친구는 아무래도 착한 도서관 친구

도서관을 친구로 표현해 봤습니다.

### 참가상 | 김\*자

**도** 도서관 봉사하며 울긋불긋 가을도 보내고

**서** 서서히 나만의 계절을 만들기 위해 고른 책 '그림자를 판 사나이'

**관** 관심 있는 그림자는 없지만 영혼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주인공을 생각하며 내 그림자를 지킨다.

### 참가상 | 정\*주

**도** 도서관을 오래 이용하다 보니

**서** 서서히 도서관 운영에 대해 궁금해졌으며

**관** 관장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방식과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훌륭한 관장님들과 도서관 관계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참가상 | 김\*연

**도** 도전해보고픈 책 100권 읽기

**서** 서두를 필요는 없어

**관** 관심을 먼저 가져볼까? 내 손에 책 들기.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지요~그런 곳을 관리해주는 관계자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 참가상 | 이\*훈

**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책이 무엇이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외치는 사람에게

**서** 서로 올망졸망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던 그대, 엄대섭

**관** 관우회를 만들어 도서관을 향한 지지를 얻은 당신

엄대섭 선생을 그리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 좋은 책 한 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산간벽지 · 농어촌 · 섬마을에 사랑의 책 한 권을 보냅니다.



## Since 1987



### 학교마을도서관 개설

농어촌, 산간벽지, 섬마을에 학교도서관을 개설합니다.



### KB작은도서관 조성

KB국민은행 후원으로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 찾아가는 책임는버스

KB국민은행 후원으로 도서관이 없는 농산어촌 마을을 찾아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강남구립도서관 17개관 위탁운영

지역사회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는 강남구립도서관을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 · 실태조사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위탁으로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 및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를 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언론 공동캠페인

2008년부터 동아일보, 강원일보, MBC, 한국일보 등 다수의 언론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2 작은도서관 이야기

발행일 2023.10.

기획 최민희

취재, 글 윤혜린

발행인 김수연

발행처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주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169

전화 02-515-1178

팩스 02-515-1156

이메일 [slibrary@naver.com](mailto:slibrary@naver.com)

홈페이지 [www.smalllibrary.or.kr](http://www.smalllibrary.or.kr)

ISBN 979-11-966805-4-1